

# 화학기업 R&D투자 지극히 인색!

증권거래소, 2002년 매출액의 1.08% 불과 ... SK는 0.90% 수준

상장기업들의 연구개발비가 늘고 있지만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가 12월 결산 상장기업 43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2년 연구개발비는 7조3289억원으로 2001년에 비해 9.00% 늘었다. 상장기업 연구개발비는 2000년 6조4805억원, 2001년 6조7238억원으로 꾸준히 늘어 왔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도 2000년 1.67%, 2001년 1.73%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국내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미국과 독일의 4.0%, 일본의 3.9%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연구개발비가 없는 기업이 전체의 19.63%인 85곳에 달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전기·전자가 6.11%로 가장 높았고 의료정밀 3.84%, 의약품 2.88%, 통신업 2.45%, 운수장비 1.83% 등 연구개발이 매출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업종에서 높았다.

화학업종의 연구개발비는 모두 5894억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1.08%에 그쳤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2조9422억원으로 연구개발비가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 5554억원, 하이닉스 4048억원, 기아자동차 3732억원, SK텔레콤 2678억원이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미래산업이 18.37%로 가장 높고 이스텔시스템즈 15.65%, 하이닉스 13.50%, AP우주통신 11.34%, KNC 9.78%의 순이었다.

SK는 매출액 13조3881억원에 연구개발비로는 1205억원을 투자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0.90%로 나타났으며, 금호산업은 매출액 2조5774억원에 연구개발비 550억원, 연구개발비 비율은 2.14%를 기록했다.

보라과 유한양행은 각각 5.43%, 5.36%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자랑했다.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매출액	연구개발비	비율
전기/전자	650,610	39,774	6.11
의료정밀	15,968	614	3.84
의약품	27,205	782	2.88
통신업	214,010	5,246	2.45
운수장비	625,966	11,473	1.83
기 계	67,290	917	1.36
화 학	546,429	5,894	1.08
철강/금속	270,110	2,794	1.03
건설업	248,471	2,299	0.93
전기/가스	324,707	1,792	0.55
섬유/의복	36,954	117	0.32
종이/목재	33,609	93	0.28
비금속광물	43,018	115	0.27
운수창고	133,709	117	0.09
유통업	744,233	268	0.04

연구개발비 상위기업 (단위: 100만원, %)

구 분	매출액	연구개발비	비율
삼성전자	40,511,563	2,942,262	7.26
현대자동차	26,336,922	555,426	2.11
하이닉스반도체	3,000,070	404,874	13.50
기아자동차	14,056,450	373,279	2.66
SK텔레콤	8,634,049	267,815	3.10
삼성SDI	4,578,728	261,784	5.72
포스코	11,728,595	260,347	2.22
K T	11,708,839	252,050	2.15
한국전력공사	21,047,875	154,900	0.74
삼성전기	3,285,712	131,482	4.00
S K	13,388,151	120,515	0.90
현대중공업	8,134,063	102,096	1.26
현대건설	5,443,359	65,320	1.20
금호산업	2,577,469	55,064	2.14
삼성테크윈	1,434,785	48,199	3.36

증권거래소는 연구개발비가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실패하면 순이익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미래 경제력을 제고하고 수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4/23>